

흑백사진 같던 그 시절

지난 ————— 여름 이야기

Summer Story

글 전용문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산경남지역본부 보건관리팀 원장 / 소설가



1960년대 초반부를 대학에서 보낸 우리 시대의 물골은 체격이 모두 나무젓가락 마냥 비쩍 말라 있었다. 방학이 되면 서울에서, 부산에서 하숙하던 고등학교 동지들이 모여들었다. 먹을게 없었던 그 시절, 친구 몇 명에서 모여 길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개 한 마리를 잡아 무인도로 건너가 탕을 끓여 먹었다. 개를 나무동치에 매달아 잡고 나면 그 뒤처리를 내게 맡겼다. 친구들은 의대생이니 네가 해체를 맡으라고 으박질렀다. 개의 배를 가르고 나면 내장이 마구 쏟아지는데 간이고, 창자고, 쓸개고 구분하지 않고 몽땅 잘라서 썰물에 다 던져버렸다. 그래, 오늘 밤에는 바다에 있는 고기님들도 보신 좀 하시게나. 술에 넣는 것이라고는 소금 한 뒷박, 통마늘 한 꾸러미가 전부였다. 누가 생간이나 천엽을 찾으면 내가 해체하면서 막소금에 찍어 먹었다고 구라를 쳤다.



우리는 뒷병 막소주에 개 다리를 뜯어 먹으며 별빛 아래에서 무수한 이야기를 나눴다. 누구는 2학기에 입대하여 월남이나 가겠다고 하거나, 누구는 대학산악연맹 행사에 참여하여 히말라야로 간다고도 했다. 누군가는 그 꿈을 이루었고, 누군가는 이미 이승을 떠났다. 해변의 밤은 아름다웠고, 우리의 젊음은 너무 팽팽해 터질 것 같았다. 그렇게 술에 취해 백사장에 널부러져 잤다. 아침에 일어나니 모두의 얼굴에서 개기름이 번들번들 흘러내렸다.



그때 나는 고향 여고에서 문예부장을 지낸 여학생과 얽은 사랑을 하고 있었다. 그 시절 젊은 남녀가 갈만한 곳이 없어 빵집이나 빙수집을 가는 게 고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이 편지 주고받기였다. 마침 그날 돌아오는 뱃머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우리의 몰골을 보고 “뭘, 개를 잡아먹었다구요?” 냄새난다고 그녀가 빵소리 쳐버렸다. 백일장에서 장원을 다투는 사이라 내 자존심이 그녀를 따라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때 선창가에서 내가 소리쳐 외친 말이 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후에 배우 강수연이 나와 이심전심으로 통했는지 그 말을 하더라. 며칠 후, 그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문학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개를 잡아 먹어요.”

내가 답했다.

“여름에 개장국을 먹지 않는 문학을 논하지 마라.”

지금 그녀는 서울에서, 나는 부산에서 질리게 오래 살고 있다. 국민 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니 아무도 보신탕을 먹지도 않고, 그 많은 가게도 없어졌다. 나도 오래전부터 보신탕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

